

제20회 순창장류축제 더 풍성해진다

개막 100일 앞두고 본격 준비 돌입… 특별 프로그램 대폭 확대·체험형 콘텐츠즈 강화

오는 10월 17일 막을 올리는 제20회 순창장류축제가 개막 100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순창군은 축제 2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차별화된 축제를 선보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과 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펼쳐지며, 전통과 현대, 체험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형 체험 축제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축제 20회를 기념하는 해인 만큼, 내용과 형식 모두 대폭 업그레이드된다.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임금님 진상행렬 발효나라 1997'은 더욱 풍성한 연출과 다양한 볼거리로 관람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에는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와 이벤트, 기념행사도 함께 열려, 지난 20년간 축제가 걸어온 여정을 되짚고 순창장류축제가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된다. 아울러, '축제 속의 축제'라는 부제를 가지고 열리는 순창예술제도 눈길을 끈다. 부무대에서 펼쳐지는 예술제가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의미



제20회 순창장류축제 포스터

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된다. 아울러, '축제 속의 축제'라는 부제를 가지고 열리는 순창예술제도 눈길을 끈다. 부무대에서 펼쳐지는 예술제가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의미

화공연으로, 지역 예술 역량을 널리 알리고 군민과 관람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향유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올해 축제는 관람객 편의와 환경을 고려한 변화도 시도된다. 발효테마파크 잔디광장을 쉼터로 조성하고, 친환경 축제를 위해 다용기 사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20회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 만큼, 더 풍성하고 수준 높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관람객들에게 전통 장류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0회 순창장류축제의 세부 프로그램과 일정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군은 군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역할을 집중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 TF 구성

남원시, 종합적 실행 체계 마련

남원시가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실행 체계 마련에 나섰다. 시는 이번 소비 쿠폰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수

단이 될 것으로 보고, 행정 시스템과 내부절차를 사전에 정비해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대응 체계를 정비 중이다. 남원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 실무진의 협업 조직으로 운영해, 지급 대상자 분석, 시스템 준비, 유관 기관 협조, 각종 문의사항 대응, 신속

집행을 위한 홍보 등 세부 업무를 나눠 실질적인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로 지급되며,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며, 소 특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된다. 또한, 남원시 경우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어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교 연구진,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방문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최근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교 연구진이 방문했다. 와게닝겐 대학은 세계 식품 과학 분야 1위 대학으로, 이번 방문은 전북 지역 식품·바이오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방문단은 진흥원의 연구 인프라, 미생물 자원 현황, 국책사업 추진 상황 등을 폭넓게 공유받았다. 특히 아시아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인 그린바이오 미생물 공급망 구축 사업과 진흥원의 미생물 분리·보존 및 산업화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연구진은 현장 견학을 통해 발효 플랫폼, 기능성 평가 시스템, 미생물 저장 기술, 품질관리 체계 등을 살



펴보며 진흥원의 기술력과 산업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와게닝겐 연구소는 유럽연합 프로젝트를 다수 주도해 온 세계적인 농식품·생명과학 연구기관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공동 연구 및 기술 이전 가능성도 논의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 정리

순창군은 수도요금 상습 체납을 근절하고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10월 30일까지 4개 팀, 총 20명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운영해 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단수 조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해 납부 독려 시스템도 함께 추진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은 오수의견관광지 내에 11일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한 전국 최고 수준의 국민여가캠핑장인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을 개장한다.

반려동물 캠핑장 11일 문 연다

임실군,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 최고 수준 시설 완비

대한민국 1500만 반려동물의 성지인 임실군 오수의견관광지 내에 반려동물과 함께 캠핑할 수 있는 특별한 캠핑장이 문을 연다. 군에 따르면 오는 11일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한 전국 최고 수준의 국민여가캠핑장인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캠핑장 개장을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힐링 여행지로써 주목받는 동시에 반려 산업 중심도시로의 도약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73년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주인을 살린 의로운 개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오수의견관광지 내에 조성된 캠핑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됐다. 이곳은 오수의견관광지 일대 반려동물 관련 기반 시설들과 더불어 지역관광 및 반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캠핑장 내 사이트마다 울타리 및 데크, 지붕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전용 산책로와 운동장, 반려견의 사육 시설, 카라반 사이트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됐다. 특히, 사람과 반려동물이 여유롭게 머물 수 있는 10mX9m 크기의 22개 데크는 대형 텐트도 충분히 설치 가능해 가족 단위 방문객과 반려인 모두의 편의와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세심히 설계됐다.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오수의견관광지 및 오수벚추모공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기능한다. 또한, 추억과 동행이라는 감성적 키워드를 반려 관광에 접목함으로써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인 임실의 가능성을 활짝 열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오수는 의견(義犬)의 전설이 깃든 반려의 고장이자, 임실군이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반려산업의 중심지"라며 "앞으로 반려 산업, 관광, 문화, 교육을 융합하는 통합 전략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려동물의 성지로 임실군 오수면을 주목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캠핑장으로 네이버를 통해 예약 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 및 문의는 대표번호(010-8239-3119 또는 0507-1433-0976)로 하면 된다. /임실=진흥영 기자

임실군, 전북형 공익직불 감액 ZERO 캠페인 전개

임실군이 지난 8일 청용면 행촌마을에서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준수와 농업·농촌의 공익 가치 확산을 위한 '전북형 공익직불 감액 ZERO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점근 4-H 연합회 회장 및 회원, 임실군청 농업축산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임실지소 담당자 및 조사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홍보에 힘썼다. 이번 캠페인은 공익직불금 준수사항을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며 정부가 정한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하



는 농업인에게 지원되며, 준수사항 미이행 시 건당 10%씩 직불금이 감액된다. 행사에 참석한 4-H 연합회 및 관계 기관 직원들은 청년 농업인들의 주도하에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안내와 함께 영농 폐기물 수거 활동을 펼치며 농업 환경 보전에 앞장섰다. /임실=진흥영 기자

지역 소식통

전국생활체육당구대회 12~16일 남원서 개최

남원시에서는 '제2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당구대회 및 2025 남원 전국당구 선수권대회'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사)대한당구연맹, 전북당구연맹, 남원당구연맹이 주최 및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허리우드 등에서 후원한다. 선수 및 심판 등 1,6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대회는 캐롬, 포켓, 스누커 등 전 종목 최상위 랭커들이 총집합하여 수준 높은 경기와 짜릿하고 시원한 명승부를 펼칠 예정이며, 특히 캐롬 3쿠션 허정환 선수가 참가하여 대회 3연패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마련해 시민과 관람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지며, 행사 기간 유소년 당구 선수들을 위한 기부 캠페인이 진행되어 차세대 스포츠 인재를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또한 당구 컬링 챌린지 이벤트를 통해 남녀노스 누구나 당구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한국실업불링연맹 전국대회 14~21일 개최

남원시에서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남원 한국실업불링연맹 전국 실업불링대회'가 남원 스포츠킴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실업불링연맹과 남원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한국실업불링연맹과 남원시불링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25개 실업팀 380여명이 참가해 수준 높은 경기와 스포츠 정신을 선보이며, 짜릿하고 시원한 명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경기는 실업팀으로 구성된 25개 팀이 5개 종목에 참가하며, 1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6일부터 19일까지 남녀 개인전, 남녀 2·3·5인조전 그리고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남녀 5인조전 및 마스터즈 결승 토너먼트가 진행되어 한국실업불링의 최강자를 가른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通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